

# iNEX

*with new sight*

2012  
vol. 18

**visit**

10인 10색의 주거,  
그곳을 만나다

**industrial**

프리패브 주택과  
임대 주택

**community**

하라주쿠  
커뮤니티 하우스  
'THE SHARE'

**frame**

9평하우스

**design**

디아스포라의 일상  
그리고 디자인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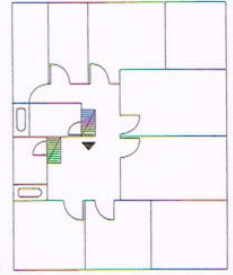
건축가  
반 시계루와 VAN



## House for Singles



# 서로 기대어 앉은 벽



20LDK

## 테라사키 리나 씨의 셰어하우스, '쿠베르튀르'

지진과 방사능이라는 집단적 공포를 겪은 일본 사회는 주거 경험에서도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시작한 것 같다.

홀로 사는 사람끼리는 물론 같이 살던 사람끼리도 더욱 돈독히 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단 큰 자연재해 때문만이라고 풀이하는 건 틀린 추측일지도 모른다. 그들의 연대는 재해가 없는 도시에서도 얼마든 가치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으니 말이다. 테라사키 리나 씨가 셰어하우스에 살면서 얻은 교훈은 함께라서 불편한 것보다 함께라서 행복한 것이라고 한다.

❖ 도쿄도 시부야구 모토요요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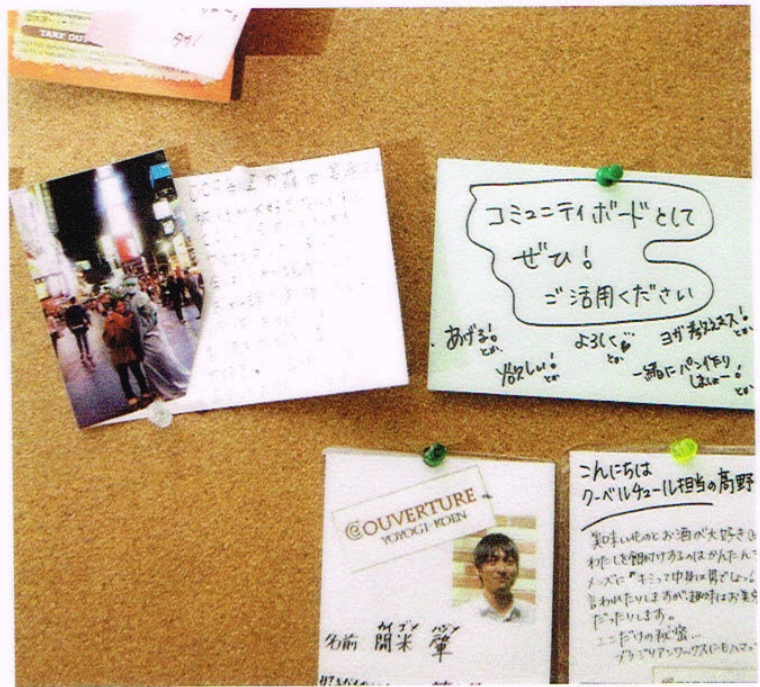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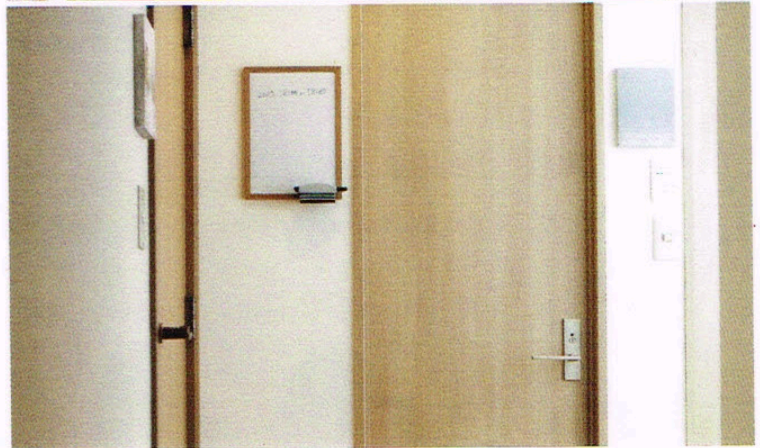


● 오손도손 한 이불을 덮듯

도쿄 요요기의 고급 주택가에는 늘 여자들의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 있다. 테라사키 리나 씨가 살고 있는 집 '쿠베르튀르'다. 이곳은 여성 전용 셰어하우스로 지난 해 초에 문을 열었다. 대형 주택을 개조해 스무 명의 입주자를 위한 개인 전용 공간을 만들고 욕실과 화장실, 거실과 주방을 입주자들이 함께 쓰는 주거 형태다. 단순히 넓은 공간을 통째로 빌려 각자 방을 나눠쓰는 사례는 이미 한국에서도 볼 수 있지만 쿠베르튀르는 스무 명의 입주자를 위한 설계와 시공이 따로 이뤄져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특징은 단순히 비용을 나눠 부담하기 위해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이곳의 월세는 혼자 사는 아파트나 소형 맨션보다 결코 싸지 않아요. 그럼에도 여기에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직업도 나이도 생각도 모두 다르지만 그래서 더 서로에게 귀기울이고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나 소형 맨션에선 이렇게 넓은 거실이나 주방을 기대할 수 없죠. 이런 곳에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주방 살림살이도 다 갖춰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갖추는 데 드는 돈도 절약되고요."

테라사키 리나 씨가 한달에 지불하는 월세는 9만 7천 엔. 각종 공과금을 합하면 약 15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만한 비용을 기꺼이 내면서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집의 넓이나 인테리어 따위가 아니라 테라사키 씨의 말처럼 이 집안에서의 커뮤니티가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도시 한가운데서 홀로 살면서 점점 잃어버린 '집안에서의 소통'을 다시 찾기 위해 테라사키 씨를 비롯한 쿠베르튀르의 입주자들은 이곳을 찾아왔다.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는 거실과 식당, 주방에서는 시시때때로 웃음꽃이 피어 오른다. 각자의 방들도 안에서 걸어 잠겨있기보다 옆 방의 친구와 턱을 괴고 누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다. 쿠베르튀르는 불어로 지붕 혹은 이불을 뜻하는 말. 그 이름처럼 한지붕 아래서 한이불을 덮고 밤새 수다를 떠는 자매들의 집 같다. 사실 원래 이 집은 대가족이 살던 대형 주택이었다. 그동안 전통적인 대가족이 해체돼 빨빨이 흩어졌다면 이제는 싱글들이 연대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 **쉐어하우스는 건강하다**

대형 종합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테라사키 리나 씨는 스물 두살에 독립해 병원 기숙사에서 살기 시작했다. 지금도 그때의 주거경험은 씩 유쾌하지 못한 기억이다. 혼자 쓰는 방이 아니어서 하루 종일 함께 일하는 사람과 주거도 함께해야 했기 때문이다. 일을 잠시 쉬고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던 그는 그곳에서 쉐어하우스란 곳에 처음 살게 되면서 기숙사와 엇비슷하면서도 완전히 색다른 쉐어하우스만의 매력에 빠지게 됐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면서도 함께 사는 세계 각국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신나는 경험이었던 것이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는 즐겁게 쉐어하우스에서 살아왔다. "병원에서 일하다보면 늘 고통이나 죽음과 마주하는 사람을 대해야만 하죠. 그러다보니 쉽게 우울해지곤 해요. 게다가 환자나 환자 주변 사람들은 의사보다는 저 같은

간호사들에게 감정을 폭발시키는 경우가 잦아요. 그래서 늘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게 직업적인 스트레스죠. 그런 기분으로 혼자 사는 집에 들어온다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 집에는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입은 상처를 다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치유하려는 생각. 그것은 테라사키 씨의 마음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테라사키 씨는 집에 돌아오면 곧잘 요리를 해 친구들을 식당에 불러 모은다. 쿠베르튀르의 공용 냉장고에는 가공 식품이 별로 없다. 대신 싱싱한 채료들로 가득하다. 두려움은 장벽을 세우고 희망은 다리를 놓는다고 했던가. 냉장고 안에 자신들의 음식을 퐁퐁 싸놓은 장벽이 아니라 모두 함께 만들어 먹을 채료를 넣어두는 일. 각자의 방은 벽으로 분리돼 있지만 그 벽은 결코 분절을 뜻하지 않는다. 오늘도 테라사키 씨가 함께 먹을 빵을 굽는 순간 벽은 순식간에 서로를 잇는 다리가 되어 눕는다. 글·김현남